

보도자료

2010년 8월 24일(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 과장(☎750-2250)
전파방송관리과 이윤호 사무관(☎750-2253) lyho@kcc.go.kr

캄보디아, 한국 지상파DMB를 모바일 방송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연말 상용서비스 실시

한-캄보디아 간 방송통신 협력을 위해 순방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부위원장은 8월 24일 오전 키에우 칸하리 캄보디아 공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 회담에서 “캄보디아측은 모바일방송 국가표준으로 우리나라가 자체개발한 지상파DMB(이하 “T-DMB”) 방식을 채택하고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T-DMB방송을 올해 안에 상용화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나라에 밝혔다”고 말했다.

이번 캄보디아와의 양자회담에서 이룬 T-DMB 표준 채택의 쾌거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캄보디아 순방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체결한 「지상파 DMB 협력 양해각서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캄보디아 정부와 활발히 협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T-DMB 개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를 지원국가로 선정하여 캄보디아 국영방송인 TVK(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)를 통해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를 실시해왔으며, 금년말 까지 T-DMB 시범서비스의 상용화 전환을 목표로 한-캄 간 방송통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.

캄보디아의 전체인구는 약 1500만명으로 과거 내전, 정국불안 등으로 정보통신인프라가 파괴되어 '09년 기준으로 유선전화보급률(0.37%), 이동통신보급률(38%), 인터넷보급률(0.53%) 등 IT지표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최근들어 이동통신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('08년에 비해 '09년도 32% 증가)하고 있어 T-DMB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이다.

정부는 이번 양자회담에서의 합의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협력 동남아시아 거점국인 캄보디아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, T-DMB 관련 방송장비, 단말기 등을 생산·판매하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.

아울러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캄보디아 국영방송국 (TVK)을 방문하여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 점검 및 시찰을 하였으며, 캄보디아 방송콘텐츠 제작 인프라 향상 및 상호 공동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화질디지털카메라 등 방송장비를 전달하였다. 끝.